

핫택 테스트 보급

코비스, 식품 등 고속 포장시 불량 방지

골판지 낙하 및 인장시험기 등을 보급하고 있는 코비스무역(대표 박홍식)이 식품업체와 연포장 업체에 필요한 Hot Tack Tester의 국내 보급에 나섰다.

국내 업체들에게 아직 생소한 Hot Tack Force는 PE, LDPE 등의 플라스틱 필름과 같은 재질의 연포장재가 열접합으로 서로 맞붙은 상태에서 완전히 굳어져 최대의 접합력을 갖지 않는 상태의 폴리머가 갖는 일종의 접합력으로, 식품업체와 연포장 관련업체에 있어 연포장재의 내용물 주입시 포장의 Quality Control에 필요한 요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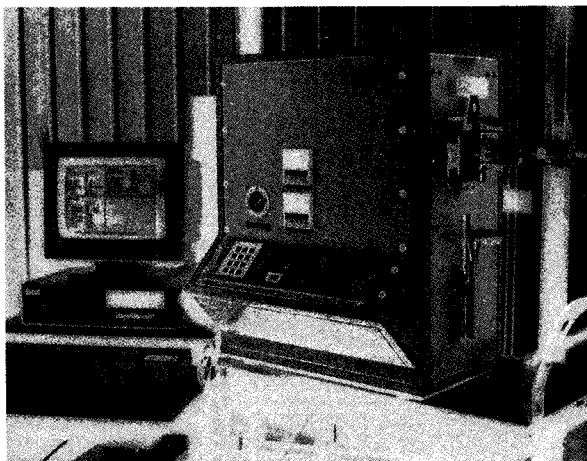
특히 라면, 과자 등의 식품업체 등에서 고속생산 포장시 발생하는 불량은 이 원리에 의거하여 포장의 최적 열접합 온도, 시간, 압력을 설정하여 불량을 제거할 수 있으며 레진 생산업체가 원료가공업체에 주는 데이터에 필수적이며, 라벨과 접착 테이프 생산업체에도 필요한 원리이다.

DTC Hot tack Tester는 1982년 스웨덴의 Packaging Research Institute 'PACKFORSK'사와 DTC사가 공동으로 처음 개발했으며,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DTC사에서 생산되어 전 세계의 석유화학, 레진, 필름메이커 등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 기계는 SOFRAPO, SODAP, MITSUI PETRO-CHEMICAL, EXXON, DOW CHEMICAL, DU PONT, DSM, UCB, STC CORP, 유공 등 세계의 우수한 회사에서 채용중에 있다.

지금까지 핫택 포스의 측정방법은 Heat Gradient Tester

▼코비스무역이 보급하고 있는 핫택 테스터



로 일정하게 온도와 압력을 실링바에 주어 시험편을 실링한 후에 일반적으로 사용중인 인장시험기(Universal Yesting Machine)로 인장 시험을 하여 정밀하지 못한 핫택 포스를 측정해 왔다.

그러나 이 데이터는 정밀한 핫택 포스가 아니므로 제품의 신뢰성과 함께 고객의 서비스에도 문제가 되어왔다.

이 장비의 특징은 기존 Heat Gradient tester가 일반적인 열접합력을 알기 위해 온도와 압력의 변수가 주어지고 접합이 되면 인장시험을 따로하여 접착강도 측정의 상호관계가 없었으나 이 핫택 테스터는 온도, 압력, 실링시간과 함께 펄링의 속도를 조절하여 포장상태의 열접합 성능을 측정하여 포장공정을 최적화 시키고 우수한 성능의 재질을 개발하는데 필요하다.

코비스무역은 지난해 4월부터 스웨덴의 DTC(Dynamic Testing Consultants)사와 한국내 독점 판매 대리점 계약을 맺고 판매하고 있으며 올해 1월부터는 아시아 지역까지도 독점 판매하고 있다.

차단성 복합수지 '노트란' 상업화 성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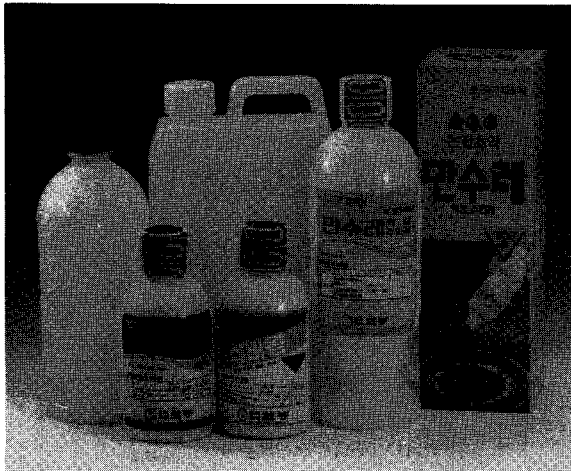
유공, 최첨단 농약용기 소재로 개발

주식회사 유공(대표이사 조규경)은 세계적 화학기업 듀폰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개발에 성공한 차단성 복합수지 '노트란'의 상업화에 성공, 지난달부터 농약용기 소재로 시판하였다.

유공측은 지난 92년 독자기술로 개발한 차단성 복합수지 '노트란'의 상업화 연구수행중 국내의 기존 농약병인 유리병이 그 특성상 무겁고 잘 깨져 농민은 물론 농약회사와 판매상에게도 문제가 되고 있으며, 현재 농업인구의 고령화로 농약용기의 경량화, 취급의 편리성, 수거의 효율성이 요구되고 있어 신소재 농약용기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보고 이를 개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유리병 대신 차단성 농약용기의 사용이 일반적이나 국내의 경우 기술도입에 대한 비싼 특허료와 고가의 수입가격 및 기술지원의 미비 등으로 신소재 농약용기의 활용이 원활하지 못했다.

유공은 자사의 차단성 수지 '노트란'을 농약용기 소재로 활용하기 위해 국내 최대의 농약업체인 한농과 공동으로 농약용기 적용실험을 추진한 결과 '노트란'이 기존의 유리병이나 일반 폴리에틸렌, PET용기 등에 비해 내용물 차단성, 취



▲ 유공이 개발하여 상업화에 성공한 '노트란' 수지를 이용한 농약용기

급 용이성, 자원 재활용 측면 등 모든 물성에서 우수함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유공은 유리병 농약용기가 완전히 차단성 용기로 교체될 경우 비롯한 국내 차단성 용기시장의 규모는 연간 5,000톤, 약 1백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유공의 '노트란'은 수입되는 차단성 수지에 비해 약 20% 가량 낮은 가격이며 기존의 유리병 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므로 농민과 농약회사의 경제적 이익은 물론 UR에 따른 개방에 대비, 농업분야의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공은 한농에 농약병 소재로 자사의 '노트란'을 판매했으며, 한농측은 이를 논잡초약 '마수레'와 살충제 '살비왕'의 용기소재로 시험, 사용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한편 유공과 한농은 빈 농약용기의 효율적인 수거 및 재생처리를 위해 생분해성 농약용기 수거봉투를 공급하는 등 농촌지역 환경보호 및 자원 재활용을 위한 활동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유공은 전세계적으로 약 200억원대에 이르는 차단성 수지 농약용기시장 진출을 위해 국내는 물론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 선진 6개국에 자사의 노트란 제품을 특허출원 중이며, 향후 미국, 일본, 인도, 파키스탄 등에도 수출할 계획이다.

유공은 이외에 '노트란'의 새로운 용도 개발에 힘써 드라이크리닝 세제용기, 방역용기, 자동차용 왁스용기, 자동차 연료탱크 등 다양한 제품을 실소비자와 공동개발, 국내외에 시판할 예정이다.

한편 차단성 복합수지란 가볍고 깨지지 않는 폴리에틸렌

수지의 장점을 그대로 가지면서도 기존의 플라스틱 제품이 인체에 유해한 유기용제 내용물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완전히 보완한 획기적인 기술로 현재 선진국에서는 농약용기, 자동차용 연료탱크, 각종 용제 용기 소재 등을 널리 쓰이고 있다.

국내 첫 HDPE 가교수지 개발

대림산업, 농업용 화학약품용 등

대림산업주식회사(사장 성기웅)는 국내 최초로 농업용이나 화학약품용 탱크, 제품포장 및 취급용 컨테이너, 어린이용 놀이기구의 가공에 주로 쓰이는 HDPE 회전성형용 가교수지를 개발하는데 성공, 국내 가공업체들의 응용실험을 마치고 시제품을 생산 판매중에 있으며 국내외에 특허출원 했다.

동사의 대덕연구소 수지가공기술센터를 중심으로 HDPE 회전성형용 가교수지 개발에 착수하여, 3년간의 연구끝에 그동안 국내에서 주로 사용되어온 LLDPE수지의 단점을 보완, 개발을 완료함에 따라 회전성형 업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대림산업에서 개발한 회전성형용 가교수지는 용도에 따라 대림포리 XL-100과 대림포리 XL-200의 두 개의 그레이드로 구별되는데, XL-100의 경우는 가교도 40%이상, XL-200은 가교도 90%이상인 제품으로서 혹독한 환경에는 XL-100의 사용이 보다 적합하다.

현재 회전용 수지의 국내시장 규모는 연간 약 2만톤 규모로서 150억원 정도에 이르고 있으며, 최근들어 성형제품의 주류를 이루는 몰탱크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회전성형 업체들이 여타 성형제품으로의 품목 다변화 및 고부가가치화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동사의 신제품이 개발됨으로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같은 HDPE회전성형용 가교수지의 개발이 국내 최초로 동사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그동안 전량 LLDPE 수지에만 의존해 왔던 국내 회전성형 업계에 커다란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되며, 가교수지 및 그동안 국내에서 가공성과 물성이 요구수준에 부응하지 못해 상업화되지 못했던 완제품 분야의 수입대체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불타지 않는 테이프 개발

연화, 10여개국 수출나서

포장용 테이프 생산업체인 연화(대표 배효영)가 불에 타지 않는 난연 PVC테이프를 개발, 시판에 들어갔다.

최근 연화는 1년간의 연구결과 열에 약한 PVC테이프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난연테이프를 개발, 시판에 나섰다라고 밝혔다.

난연테이프는 15초간 불꽃을 갖다대는 시험을 다섯번 실시했을 때 한번도 불에 타지않을 만큼 내후성, 접착력, 내열성, 내한성 등이 뛰어난 제품이다.

이 제품은 전기테이프, 전자테이프 두종류로 세계 10여개국에 수출되며 열대지방에서도 전혀 변형되지 않을 정도로 내열성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난연 전기테이프는 KS마크 및 미국 UL마크를 획득했다.

고순도 PVC타폴린 개발

유니온, 연산 500만m 생산설비 갖춰

산업용 타폴린 제조업체인 유니온포리머(대표 박원배)가 고순도·고광폭의 PVC타폴린을 개발, 본격생산에 들어갔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니온포리머는 STS(Screen to Screen)공법을 이용하여 국내에선 처음으로 2,000g의 고후도와 3m이상의 고광폭을 갖는 고부가가치의 PVC타폴린 제품을 개발, 충남 천안공장에 연산 500만m의 생산설비를 갖추고 대량생산에 나섰다.

이 제품의 개발로 유니온포리머는 올해 유럽과 미주 등지로 2백만달러 이상의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그동안 외국산 제품에 의존하던 업체들의 수입대체가 가능한데다 최근 아크릴 간판 대응으로 이 제품의 수요가 크게 확대되고 있어 지금까지의 수출일변도의 전략에서 탈피, 국내시장에도 적극 진출할 계획이다.

STS공법이란 고장력폴리에스터 패브릭을 가운데 넣고 양면에 줄타입의 PVC원료를 코팅처리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두께와 폭을 가진 제품을 생산할 수 있어 다품종 소량생산에 적합한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다.

고기능성 XLPE 개발 생산

삼성종합화학, 내구·내압성 우수

삼성종합화학(주)(대표이사 황선두)은 최근 작년말 자체개발에 성공한 XLPE(Cross Linked Polyethylene)수지를 연간 약 5천톤 규모로 생산,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갔다.

이 제품은 파이프 등 건자재, 비행기활주로·테니스장·주차장 등 토목자재로 활용가능한 내열성·내구성·내압성 및 가공성이 우수한 것이 특징이다.

XLPE수지는 국내에서 주로 온수온돌용 파이프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비행기·격납고·테니스장·교회·실내체육관·주차장·횡단보도용 등 건축 및 토목자재로 다양하게 쓰이는 고기능성 합성수지 제품이다.

이번에 삼성종합화학이 고부가제품 개발의 일환으로 대신유화단지에서 생산중인 HDPE(고밀도폴리에틸렌)를 원료로 생산하게될 XLPE수지는 가공업체에서 가교제와 첨가제를 혼합해 파이프를 만들때 작업성과 가공성이 뛰어나고 내열성 등 물성이 우수하다.

국내 온수온돌파이프용 XLPE시장은 수요가 93년에는 약 3만톤이던 것이 94년에는 3만6천톤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95년에 4만톤, 96년에 4만7천톤 등 앞으로 연간 약 16%정도씩 급격한 수요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한편 삼성종합화학은 앞으로 이 제품이 온수온돌파이프의 원료외에 선진국에서 처럼 건축과 토목부문의 대체소재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용도와 잠재수요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삼성종합화학이 개발 생산하는 LXPE는 요스, 요출용 파이프는 주로 건축 난방용 자재로 사용된다.



WHITE OPAQUE 필름 자체 개발

SKC, 인쇄·제전특성 우수하고 변색적어

(주)SKC(대표이사 안시환)는 폴리에스터 필름을 기재로 한 'WHITE OPAQUE 필름' 개발에 성공했다.

6년여의 자체연구 끝에 개발된 PET WHITE 필름은 기존의 PET 필름에 높은 굴절률의 티타늄화합물 충전제와 광택도 제어를 위한 실리카화합물 충전제 및 백색도 증진을 위한 증백제 등을 첨가한 제품이다.

PET WHITE OPAQUE 필름은 일반적으로 필름표면의 인쇄특성 및 제전특성이 우수하고 열과 태양광선에 의한 변색(황화현상)이 적어 각종 PREPAID CARD, 공중전화카드, 라벨용지, 사진인화지, 각종 인쇄재료, 고급포장지 등에 널리 사용되는 제품이다.

수입에 의존하던 국내 시장에 저렴하고 우수한 품질의 제품공급이 가능하게 되어 상당한 수입대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분산성, 광학 및 전자특성, 인쇄성 등의 제조조건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제품으로 알려져 있다.

SKC는 이미 국내 거래선을 대상으로 시제품에 대한 테스트를 마치고 공급을 시작하였으며 일본을 비롯한 해외시장에도 본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할 예정이다.

일본의 경우 국철카드, 전화카드, 프리패이드 등에 이미 상당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프리패이드 카드의 경우만 하더라도 시장규모가 300억엔(한화 2,100억엔)에 달하고 있다.

SKC는 국내시장의 잠재수요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으며 용도개발 등 적극 마케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벽지제조용 무공해 잉크 개발

한양, 질감·색상 부드러운 표현

산업용 잉크 전문제조업체인 한양화학공업(대표 임춘수)은 벽지제조용 무공해 수성발포잉크를 개발, 본격 생산에 들어갔다.

한양화학은 최근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디옥티프탈산 가스의 방출을 방지할 수 있는 데다 질감과 색상을 부드럽게 낼 수 있는 수성발포잉크를 자체 개발했다.

이 회사는 기존의 반월공단내 공장을 활용, 올해 6천톤의 수성발포잉크를 생산할 방침이다.

기존의 벽지용 PVC 발포잉크는 생산과정에서 일부 유독가스가 발생, 작업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블로운필름 생산라인 제작

신화, 용융수지온도 균일

필름가공기, 라미네이팅기, 믹서기 등 플라스틱가공기계 전문제작업체인 신화공업주식회사(대표 김공섭)가 용융수지온도가 균일한 블로운필름 생산라인을 새롭게 제작, 시판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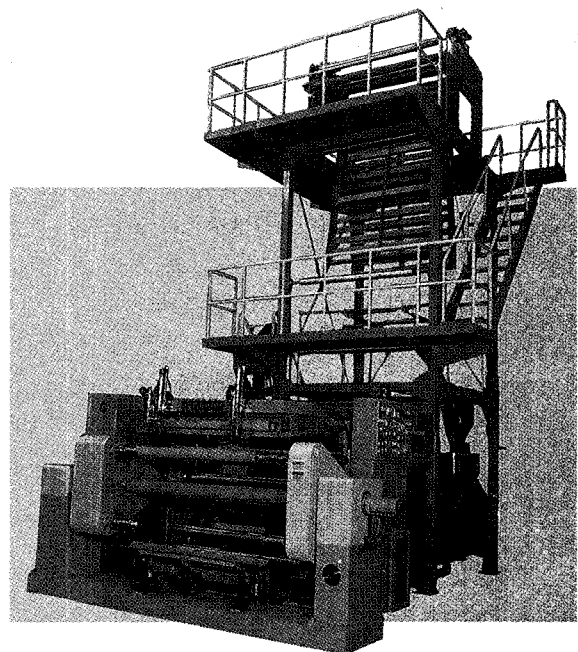
신화가 제작한 블로운필름 생산라인은 생산제품의 품질이 우수하고 기존 기계에 비해 생산량이 많아 생산성을 크게 높인 것이 특징이다.

특히 제품의 특성에 따라 스크류설계가 다양하고 운전동력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어 비용절감 효과가 뛰어나다.

또한 각부의 모터, 히터 등을 일괄관리함으로써 속도, 온도의 제어가 가능하며 프로그램의 선택에 의해 자동운전, 데이터의 보존, 재현프린트-아웃으로 고도의 품질관리도 할 수 있다.

스크류는 높은 생산성과 용융수지온도의 균일성이 요구되는 만큼 종전에 비해 50%이상의 압출량이 증가된 특수 BM형을 기본으로 장착했다.

▼신화가 새롭게 제작한 블로운필름 생산기계



이 회사에서 제작한 기계는 LD, LLD, HDPE, PP 등 여러가지 필름을 선택하여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SBF-1000의 경우 베이스레진 HDPE, LLDPE, LDPE, BLENDS를 사용하여 시간당 80~100kg을 생산할 수 있고 필름두께는 0.01~0.1mm, 필름넓이 800mm이다.

익스트루전 블로운 몰딩시스템 제작 대아, 고속 드라이 사이클 실현

중공성형기를 전문으로 생산해온 주식회사 대아기연(대표 이회원)이 형체장치의 상승, 하강동작에 따른 충격을 극소화함으로써 빠른 드라이사이클을 실현할 수 있는 전자동 익스트루전 블로운 몰딩시스템을 제작했다.

이 회사에서 제작한 중공성형기의 압출장치는 PVC나 폴리카보네이트와 같이 열에 민감한 재료를 성형하기 위해 공기냉각판이 장착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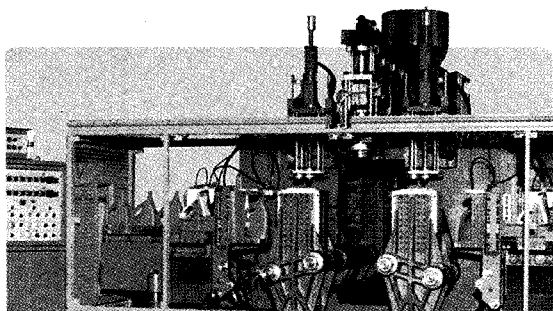
특별사양인 금형은 생산량의 증대효과를 30%이상 얻을 수 있도록 열전도율이 우수한 알루미늄합금 및 베리리움과 같은 특수 재료를 사용하여 주입구 부분이나 하단부분의 특별한 냉각조건들을 고려하여 2~3개의 냉각존으로 구분 설계되어 있다.

또한 그릇 등의 성형제품은 핀치오프 부분의 잔류수지가 제거된 상태로 기계에서 취출되는 구조이다.

주입구 어깨(타원형 용기), 손잡이 부분의 불필요한 스크랩은 공압실린더에 의해 완전히 제거되고, 재료의 분배율, 용기의 면두께를 다양하고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14년간 각종 성형기계를 개발하여 공급해온 대아기연은 고객이 필요로 하는 성형기계를 생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이번에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었던 부분들을 개선한 제품을

▼대아가 고속 드라이사이클을 실현한 기계



선보이게 된 것이다.

회사측은 “항상 첨단기계를 만들고자 하는 개발의지와 실천으로 앞으로 최첨단의 기계를 제작하여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거식 충전 피드백시스템 개발 세계로, 인위적 재설정 불필요

계량기 전문제작업체인 세계로시스템(대표 이신재)이 어거 충전용 피드백시스템을 개발하고 본격, 판매에 나섰다.

어거충전방식은 소포장용 분체충전에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필스화된 어거의 회전량을 제어하는 방식으로 한번 카운터를 설정해 두면 인위적인 재설정이 필요없고, 설정치만큼 계속해서 운전을 하게되어 있으나 운전중 제품의 특성(혼합비율, 레벨, 습도, 온도 등)에 변화를 일으켜 오차를 발생해 왔었다.

이러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 외국의 우수한 제조업체들이 개발한 피드백시스템이 있었으나 가격이 비싸면서 국내의 환경에 적합하지 않고, 애프터서비스 등 많은 애로가 있었다.

세계로시스템은 이런 점을 착안하여 그동안 고가의 로타리 포장기에만 장착하여 사용하던 시스템을 간략화, 고기능화하여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개발, 양산체제를 갖추고 시판에 나섰다.

이 제품은 기존 반자동 생산라인 및 이미 설치된 수평형, 수직형, 로타리형 포장기 및 캔포장기 등 자동포장기 라인에 쉽게 설치할 수 있어 품질향상 및 원가절감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네트 및 그로스방식 충전이 가능하고 1차 및 2차충전으로 스피드업한 구성도 가능하게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식품, 제약, 농약, 국산차류, 농산물 가공품 등 분말제품 외에 점성이 있는 페스트제품에도 사용되며 비닐류의 봉지, 캔, 각종 용기 등 포장형태에 관계없이 장착이 가능하며, 특히 제품의 특성이 자주 변화하는 제품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고 대화식 메뉴로 조작이 간편하여 비숙련자도 손쉽게 운전이 가능하다.

이 회사는 이 기계가 최저의 가격으로 확실한 성능을 발휘하도록 제작되었으며 생산업체는 물론 기술을 원하는 포장기기 생산업체에도 적극적으로 공급할 계획이기 때문에 폭넓은 이용이 기대된다.

인쇄기 시장 판도변화 예고

한화, 소형 오프셋 인쇄기 개발

국내 인쇄기계 시장의 판도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주)한화가 올하반기부터 소형 오프셋 인쇄기 개발에 들어갈 예정이고 두산기계와 원창상사가 일본 인쇄기 제조회사와 기술제휴나 합작 등의 형식으로 국내 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며 독일의 캐바우사도 대리점을 개설, 대·소형 인쇄기 공급에 나섰다.

이들 업체들은 기존의 공급가보다 10~15% 정도 인하된 금액으로 출시할 예정이어서 인쇄기 가격형성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주)한화는 대기업으로는 두산기계에 이어 두번째로 소형 오프셋 인쇄기 개발에 들어가 내년초부터 국내 시장에 선보일 계획으로 현재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단면기와 양면기를 개발해 국내외 인쇄기 시장에 진출한 두산기계는 일본 하마다사와 기술제휴를 체결해 소형단면 및 양면 오프셋 인쇄기를 생산, 오는 8월경에 출시할 계획이다.

두산은 기술제휴를 통한 신기종 생산과 함께 ▲적정가격 ▲신속한 A/S ▲원활한 부품공급으로 소비자의 불만이 없도록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두산의 한 관계자는 “기술제휴 기종의 국산화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국내에서만 제작하려면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추기가 어렵다”면서 “국내 인쇄기 개발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인쇄업계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산은 이번 기술제휴로 생산하는 기종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독자적 고유모델로 개발할 계획이다.

일본 아끼야마인쇄기 국내 공급원인 원창상사도 이번달부터 국내 생산에 돌입한다.

원창은 1차적으로 부품 등 전량을 일본에서 들여와 100% 조립생산 방식을 택할 방침이다.

원창은 이를위해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생산공장을 확보했으며 우선 대국전 양면전용 인쇄기와 4.6반질 4색·5색 인쇄기를 생산할 계획이다.

원창의 관계자는 “국내에서 아끼야마인쇄기가 직접 생산되면 기존 구입가보다 15%가 인하된다”며 “조립생산을 위해 일본인 기술자 5명이 국내에 상주하게 돼 사실상 아끼야마인쇄기의 한국 현지생산 체제로 출발하지만 3~5년 이내에 반드시 국산화를 이룩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창은 이와함께 국내 부품공급의 원활화를 위해 일본에서

충분한 양의 부품을 미리 들여올 계획이며 A/S 및 기술요원도 충분히 확보, 일본에서 기술교육을 받도록 추진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또한 독일 캐바우사 국내 공급업체인 비전테크상사와 삼우무역도 최근 사업을 개시해 신문용 운전기를 비롯한 인쇄기 공급에 나서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직수입 가격보다 10%정도를 인하했다.

자원재생산업, 캔압축기 개발

가격 저렴, 1/5이상 압축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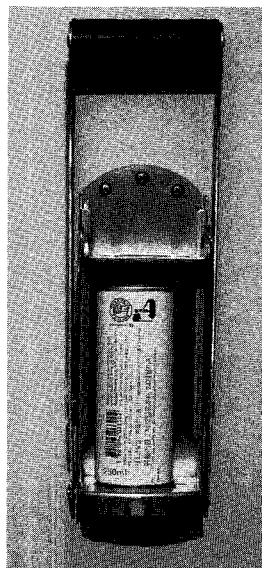
자연을 보전키 위한 해결방안의 하나로,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재자원화 문제는 이미 국제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폐기물 감량화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의 발생지점으로부터 수거, 운반, 최종처리의 전 과정을 체계화하고, 일원화하여 이를 정착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자원재생산업주식회사(대표 박 금철)는 캔압축기를 저렴한 가격으로 전 국민에게 보급하여 쓰레기의 양을 절대량을 줄이고 이를 수거 재생하는 것이 최선책이란 것에 착안, 압축기를 개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리버스’라는 제품명으로 시판되고 있는 이 제품의 특징은 가격이 저렴하고(보급가:29700원) 설치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수동식으로 견고하고 무엇보다도 실체크기보다 1/5이상으로 압축이 가능하여 폐기물을 대폭 감량화 할 수 있다.

한편 이 제품은 특허출원된 상태다. (전화번호:548-7278)



자원재생산업의 캔압축기 '리버스'

식품가공기 국내조립 납품

백한기술, 컨설팅 용역도

식품가공 및 의약품생산 기계업체인 백한기술(대표 주용준)이 식품가공기계를 국내서 조립, 납품할 계획이다.

이 회사는 외국산 식품가공기계를 녹다운방식으로 들여와 이를 발주회사의 생산라인에 맞게 조립하여 납품한다.

이를 위해 독일 등 선진 식품가공기계 메이커들과 국내판매권 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생산라인 설계와 관련한 컨설팅 등 기술용역 사업도 벌일 계획이다.

회사측은 이와관련 “당장은 기술용역사업에 치중한 후 내년 하반기에 자체 공장설립에 들어가 생주스 등 식품가공기계 국산화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라며 최근들어 국내 식품업체들의 신제품 개발 경쟁에 따라 점차 사업규모를 늘려나가 앞으로는 의약품 생산기계 설치사업에도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는 올해 오퍼세일 등으로 15억원의 매출액을 올릴 계획이다.

유통기한 인식 스탬프패드 보급

호마, 재생기능 갖춘 고성능

정수기 및 라벨기를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주)호마(대표이사 이범승)가 재생기능을 갖춘 양면 패드인쇄기를 도입하여 시판에 나섰다.

이 기계는 코팅된 종이, 플라스틱 등의 포장지에 유통기한, 제조일자, 로트번호 등을 날인하는 속건성잉크는 건조속도가 빨라 스탬프 표면이 말라붙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를 해결한 첨단소재의 스탬프패드이다.

미국의 마크사 제품이 이 기계는 첨단소재의 모세관 작용으로 패드가 쉽게 마르지 않고 계속 뒤집어 사용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속건성 잉크는 미국 농업성에서 인체에 안정성을 승인한 제품으로 식품포장에도 사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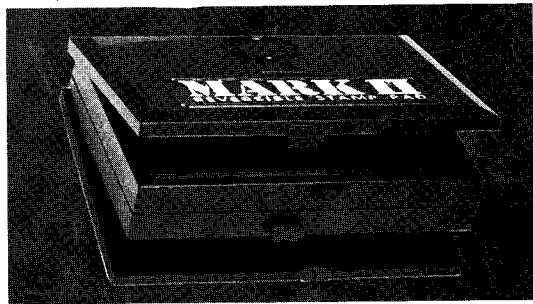
잉크색상은 청색, 흑색, 흰색, 적색, 노란색의 5종류가 있으며 잉크의 건조속도는 약 10초이며, 건조후에는 물이 묻거나 손으로 문질러도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패드는 보충용잉크(55CC), 활성제(55CC)와 함께 세트 판매하며 소비자 가격은 38,500원(부가세 포함)이고, 2세트 이상 주문시 세트당 33,000원에 판매한다.

국내의 소비자에게 폭넓게 공급하기 위해 박리다매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이 기계는 가볍게 사용하므로 종전 패드보다 내구수명이 2배이상 연장된다.

잉크의 건조속도는 10~15초에 맞추어 현장상황에 적합하고 한번 날인된 일자나 부품번호 등은 지워지지 않아 상품의 신뢰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호마가 보급하는 마크-11인쇄기



진로맥주 대대적 설비 증설 나서

신제품 카스 라벨 병 모양 확정

이달부터 맥주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진로가 대대적인 설비증설 작업에 나서는 등 맥주제조 3사가 사활을 건 전면전에 돌입할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12일 관련업체에 따르면 진로는 최근 맥주 생산 설비 시험가동과 함께 2단계 증설공사에 착수, 연간 생산능력을 현재의 21만kl에서 내년에는 42만kl로 배가시킬 계획이다.

이같은 생산능력은 OB의 지난해 판매실적(1백7kl)에 비해서는 절반정도, 크라운(44만kl)과는 거의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는 것이어서 맥주 3사의 판매전은 더욱 치열하게 됐다.

이와 함께 진로는 이달말에 선보일 카스 맥주의 라벨과 병 모양을 아래와 같이 확정했다.



◀ 진로 쿠어스 맥주(주)가 이달부터 판매하기 시작한 '카스' 맥주는 독특한 모양의 병과 라벨이 돋보인다.